

청소년의 개인, 가족, 친구 및 학교관계 변인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

허은경* (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)

이경님 (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)

최근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저 연령화 되고 있으며, 특히 여학생의 문제행동이 급격히 증가되어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. 그러므로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관련된 개인 및 환경 변인을 확인하여 규범적 문제행동을 예방,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. 본 연구는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성과 학교계열에 따른 차이와 규범적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, 가족, 학교 및 친구관계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성별에 따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.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, 실업계 고등학교의 각 2개교씩 4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청소년 8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연구도구는 규범적 문제행동척도, 자아존중감 척도, 자극추구성향 척도,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, 학대경험 척도, 학교부적응 척도, 친구집단의 문제행동 척도 및 배경변인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. 예비 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/Win version 10.0을 이용하여 이원변량분석, 단순주효과 검증,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,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

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. 첫째,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으나, 인문계의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규범적 문제행동이 더 많다.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규범적 문제행동이 더 많다. 둘째, 남학생과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더 많다. 또한 여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규범적 문제행동이 많다. 셋째, 남학생과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,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적으며, 부모로부터 신체학대, 정서학대, 방임의 경험이 많을수록 더 많다. 넷째, 남학생과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학교에서 학습활동, 규칙준수, 교사관계, 이성관계에 부적응할수록 더 많다. 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교우관계에 부적응할수록 규범적 문제행동이 더 많다. 다섯째, 남학생과 여학생의 규범적 문제행동은 학교에서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규범적 문제행동이 더 많다. 여섯째,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 변인은 성에 관계없이 친구관계 변인인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났으며, 그 다음 남학생의 경우 개인 변인인 자극추구성향, 가족 변인인 정서학대경험, 학교 변인인 학교계열과 학교부적응의 순으로, 여학생의 경우 개인 변인인 자극추구성향, 학교변인인 학교계열과 학교부적응의 순으로 규범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